어떻게 예방하나요?

알용이가 알려줄게~

- 야외 활동 장소에 벌집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 119 출동 대비를 위한 활동 장소 위치 파악하기
- 긴 옷, 긴 바지를 입고 어두운 옷보다 밝은색 옷 입기
  *공격성: 검은색>갈색>빨간색>초록색>노란색
-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몸을 낮추고 20m 이상 빠르게 뛰기
  *벌집 근처에 있으면 벌의 공격성이 줄어들지 않아 더 위험
- 야외 활동 전 벌쏘임 관련 안전교육 실시하기
- 벌쏘임 사고 대처를 위한 응급 처치법 숙지 및 비상용품 챙기기
-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자제하기
- 모기약 스프레이 등을 준비하기



알레르기질환 알려드려요



아토피피부염



천식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상담 및 교육 문의

대표전화
1661-3239

운영시간
09:00 ~ 17:00 (토, 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jb-atopyinfocenter.co.kr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1층

인스타그램 jb_atopyinfocenter
유튜브 전북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jb-atopyinfocenter

본 자료는 질병관리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자료 사용 시 사전에 이용허락이 필요하며,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질병관리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병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ay Healthy by Learning about Allergy

벌쏘임 주의보! 대처는 빠르게, 대비는 철저하게

벌독 알레르기



전북특별자치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Jeonbuk State Atopy·Asthma Education and Information Center

벌독 알레르기는 무엇인가요?

벌독 알레르기는 대표적인 곤충 알레르기입니다. 단 한 번의 벌침에도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벌독 감작률은 전체 성인 인구의 약 15~25%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는 야외 활동 중 벌에 쏘여 발생합니다. 벌독 알레르기는 5월부터 11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벌초와 가을 산행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7~9월에 발생 빈도가 더욱 높습니다. 주요 원인 벌은 꿀벌과와 말벌과로 나뉩니다. 벌에 쏘인 후 병원 이송을 대비하여 어떤 벌에 쏘였는지, 몇 군데를 쏘였는지, 어느 부위에 쏘였는지를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말벌과 꿀벌의 차이



말벌



꿀벌

일자형으로 뾰족하며 **여러 번 찌를 수 있음**

갈고리 모양으로 쏘고나면 대부분 벌침이 빠져 **한 번만 찌를 수 있음**

먹이가 필요하면 **집단으로 공격**하는 등 매우 위험

재래꿀벌(토종꿀벌)은 양봉꿀벌(서양벌)에 비해 크기가 더 작지만 **날개가 크며 추위에 견디는 능력**이 좋음

특히 **장수말벌**은 미세한 진동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안전에 더욱 유의**

공격 받거나 이상행동이 감지되지 않는 이상 **먼저 공격하지 않음**

증상

국소 반응

벌에 쏘인 부위의 부종이 10cm 이상으로 커지고 24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통증, 발적,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 부종이 팔이나 다리로 넓게 퍼지는 광범위 국소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신 반응(아나필락시스)

벌에 쏘인 후 즉시 또는 10분 이내에 발생하며, 피부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등 여러 장기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
- 두드러기
- 가려움증
- 홍조
- 입술·혀·목젖의 부종

호흡기
- 코막힘
- 콧물
- 재채기
- 기침
- 쉰 목소리
- 호흡곤란
- 가슴 답답함
- 쌕쌕소리



신경
- 안절부절 못함
- 실신
- 의식저하

심혈관
- 저혈압
- 심장마비
- 빠른 맥박

소화기
- 복통
- 메스꺼움
- 구토
- 설사

진단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 '벌독 알레르기'가 의심되면 알레르겐 피부반응 검사, 특이 IgE 혈액 검사를 통해 벌독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쏘임 응급처치 방법



신용카드 등으로 신속히 환부의 벌침을 제거합니다.

*손 또는 핀셋을 이용하여 벌침을 제거하는 것은 벌침을 짜서 독이 더욱 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얼음 주머니로 붓지 않게 하고 경과를 관찰합니다.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가까운 응급실로 이동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응급실 진료 후 증상이 호전되었더라도, 알레르기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료**와 검사를 받아 향후 재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방과 치료

회피요법

벌이 있는 장소에 최대한 가지 않습니다. 원인물질을 회피하는 것은 좋은 예방과 동시에 무엇보다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약물요법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경우 가장 중요한 치료는 에피네프린 근육주사입니다. 재발 위험이 있는 환자는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휴대하도록 합니다.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사용법

1 뽑는다



주사침이 나오는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주먹을 쥐듯이 한 손으로 잡고 위쪽에 있는 안전 캡을 다른 손으로 뽑습니다.

2 찌른다



허벅지 바깥쪽(전외측)에 수직방향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강하게 밀어 넣습니다. (옷을 입은 채 사용해도 됩니다.)

3 10초 유지



딸깍 소리가 난 후부터, 10초 동안 누른 상태를 유지합니다.

4 병원 이송



증상이 호전되었더라도 2차 반응이 올 수 있으므로 응급실로 이송합니다.